

네오아트센터 기획 초대전

윤인자

“숲의 소리”

Whispers of the Forest

2026. 8. 19. WED — 10. 10. SAT

OPENING

2026. 8. 19. WED 16:00

1, 2전시관

NEO Art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Yoon Inja

윤인자

Yun In Ja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양화) 졸업

개인전 /

2026

모나밸리 초대전

2025

갤러리티 초대전

모나밸리 초대전(Dear Forest-Dear Ceii)

갤러리라메르 초대전

갤러리로윤 초대전(숲에 머물다)

화이트바움 초대전 등 20여 회

단체전 /

해외 아트페어 다수 기타 그룹 및 단체전 200여 회

(서울아트페어, 부산국제아트페어(BEXCO), 자카르타 아트페어,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

싱가폴 아트페어, 홍콩 아트페어 외 다수)

NEOArt

캔버스 피어난 붉은 생명력 윤인자의 '정령'이 건네는 치유의 숲길

윤인자의 캔버스는 자연의 일부이자, 작가의 영혼이 깃든 또 다른 세계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캔버스 앞면을 거부하고, 아사천을 뒤집어 날것 그대로의 거친 직물을 끌어안는 그녀의 화면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살갓이 된다.

'정령(精靈)'은 이러한 윤인자의 예술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그녀에게 정령이란 숲과 대지, 바다와 하늘에 깃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이자 영혼의 숨결이다.

지난해 서초동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마주했던 작가의 모습이 떠오른다. 마른 체구의 작가에게서 뿜어져 나오던 밝은 기운, 그리고 이와 대비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던 '대지' 시리즈의 묵직함.

"원초적인 생명력이 캔버스 뒷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던 그녀의 고백은, 오는 19일 네오아트센터 초대전은 한층 깊어진 밀도감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전시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작품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리나라의 사계(四季)를 오롯이 품어내며 대순환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특히 필자의 발길을 오래도록 붙잡은 것은 서해안 소래포구를 연상케 하는 붉은빛의 갯벌 작품들이다. 유난히 허허로운 썰물이 지나간 자리, 척박한 소금기를 자양분 삼아 붉게 군락을 이룬 염생식물의 모습은 시각적 경이를 넘어선다.

긴 연휴마다 아버님을 모시고 찾았던 소래포구. 그 시절의 애뜻한 추억과 그리움의 감정이 작가의 붉은 갯벌 위에서 아스라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거친 직물 위로 물감의 레이어를 켜켜이 쌓아 올린 이 붉은 갯벌은, 힘겨운 나날의 소금기 속에서도 기어코 생명력을 틔워내는 우리네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인자의 회화는 구상과 추상의 아득한 경계 위에서 끊임없이 진동한다. 멀리서 작품을 조망하면 숲이 보이고, 갯벌이 보이고, 일렁이는 바다가 보인다. 그러나 작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구체적인 형상은 흩어지고 오직 강렬한 원색과 거친 질감만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작가는 전형적인 명암법과 원근의 원칙을 과감히 내려놓고, 형태와 색채를 최대한 절제한다. 그 비워진 자리는 무한히 반복되는 붓과 나이프의 사각거리는 스트로크로 채워져, 가벼운 환영(Illusion)이 아닌 깊이 있는 물성적 '밀도감'으로 치환된다. 추상적 이미지 속에서도 기어코 구상의 형태를 잃지 않는 화면 구성은, 물질과 정신, 예술과 삶이 본래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철학적 통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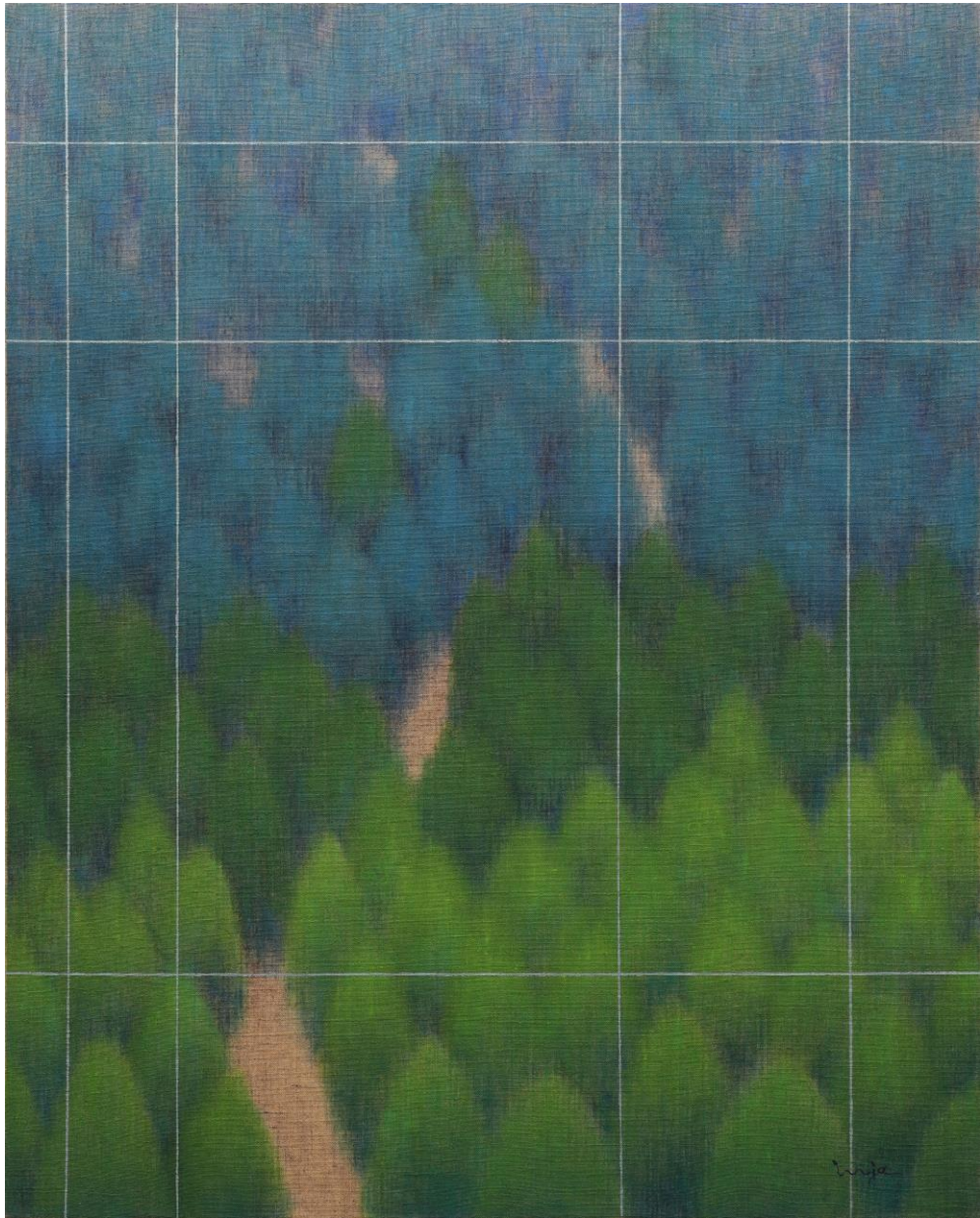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더욱 인상적인 지점은 뻣뻣한 밀도의 숲 시리즈 속에서 조용히 열려 있는 '숲길'의 존재다. 캔버스를 가득 메운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이 작은 길은, 닫혀 있던 화면을 무한한 공존의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작가가 세심하게 열어둔 이 숲길은 단순한 시각적 여백을 넘어 관람객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하는 사유의 통로가 된다.

관람객은 그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며 나무와 흙, 바람이 나누는 무심한 호흡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윤인자의 캔버스 위에서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정한 목소리를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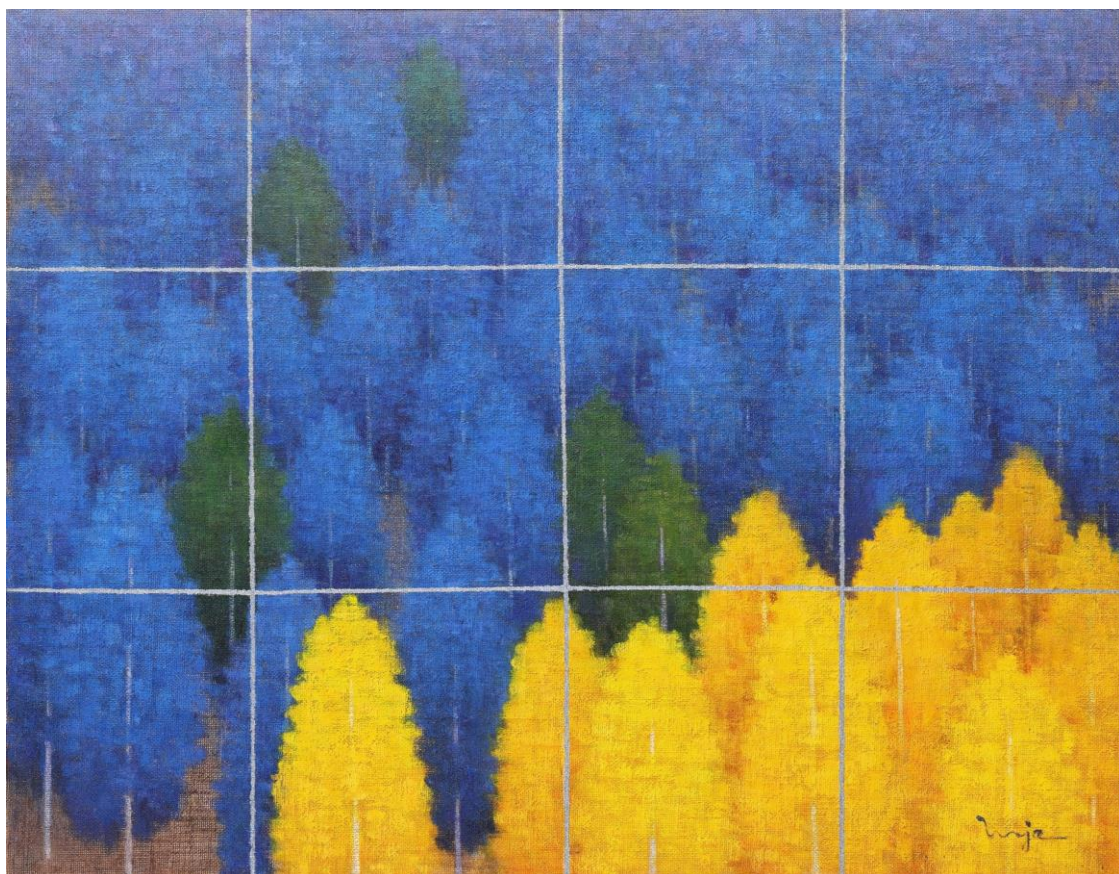
그녀가 거친 캔버스 뒷면에 묵묵히 새겨 넣은 사계의 순환과 붉은 갯벌의 생명력은, 지치고 힘겨운 나날을 견디는 우리에게 서로 기대어 온기와 희망을 나누자는 다짐이기도 하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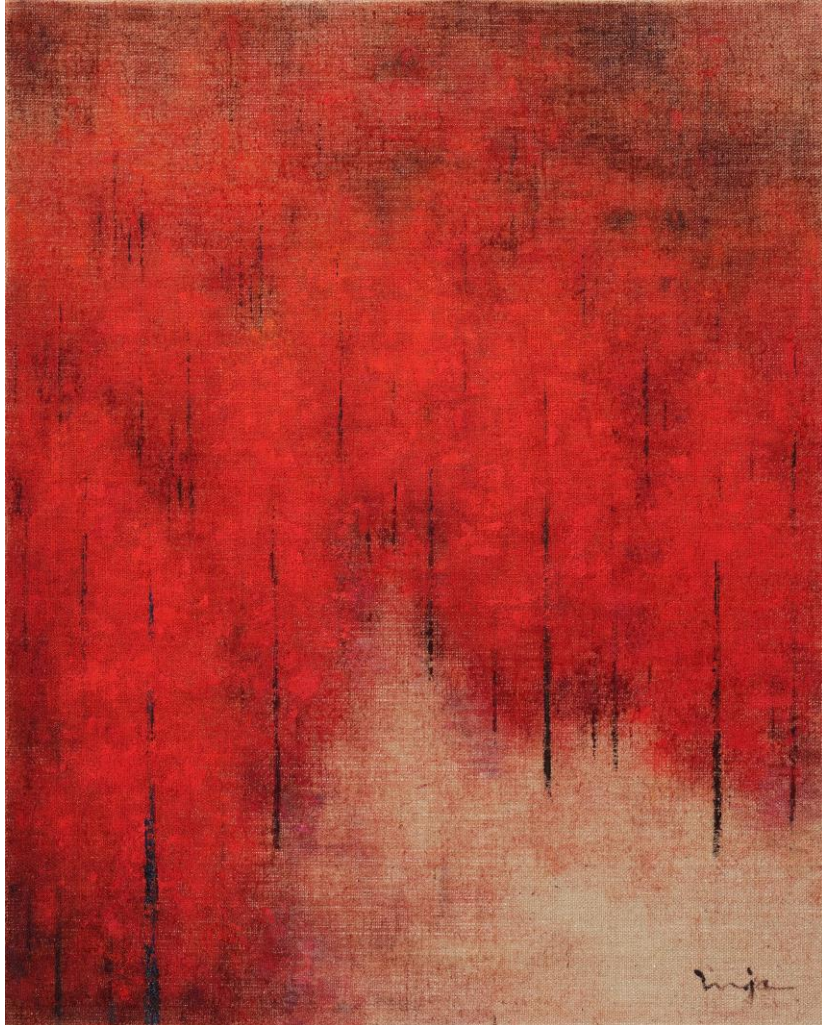
Forest-spirit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6



Forest-spirit

130.3x162.2cm,
Oil on canvas,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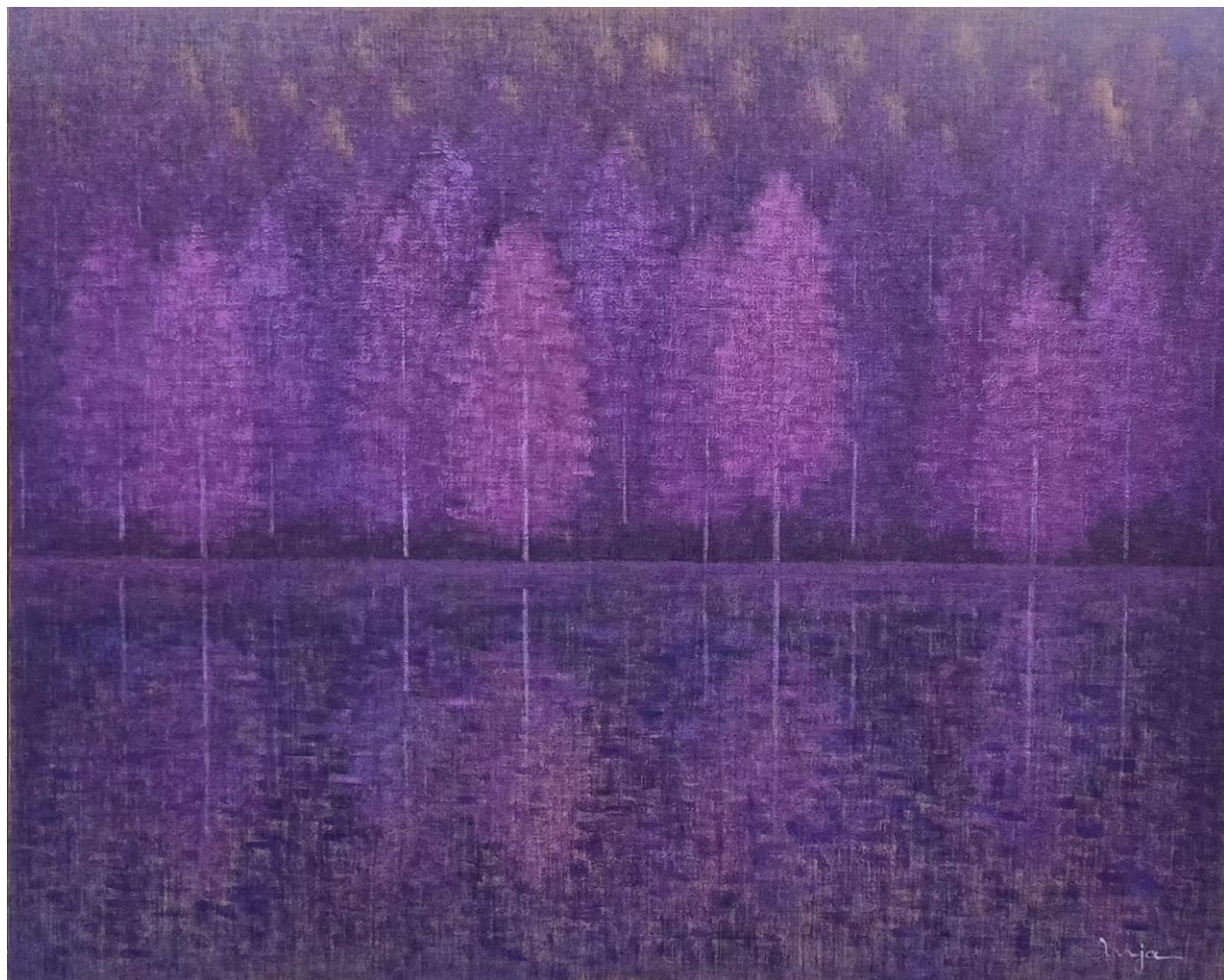
Forest-spirit

90.9x72.7cm,
Oil on canva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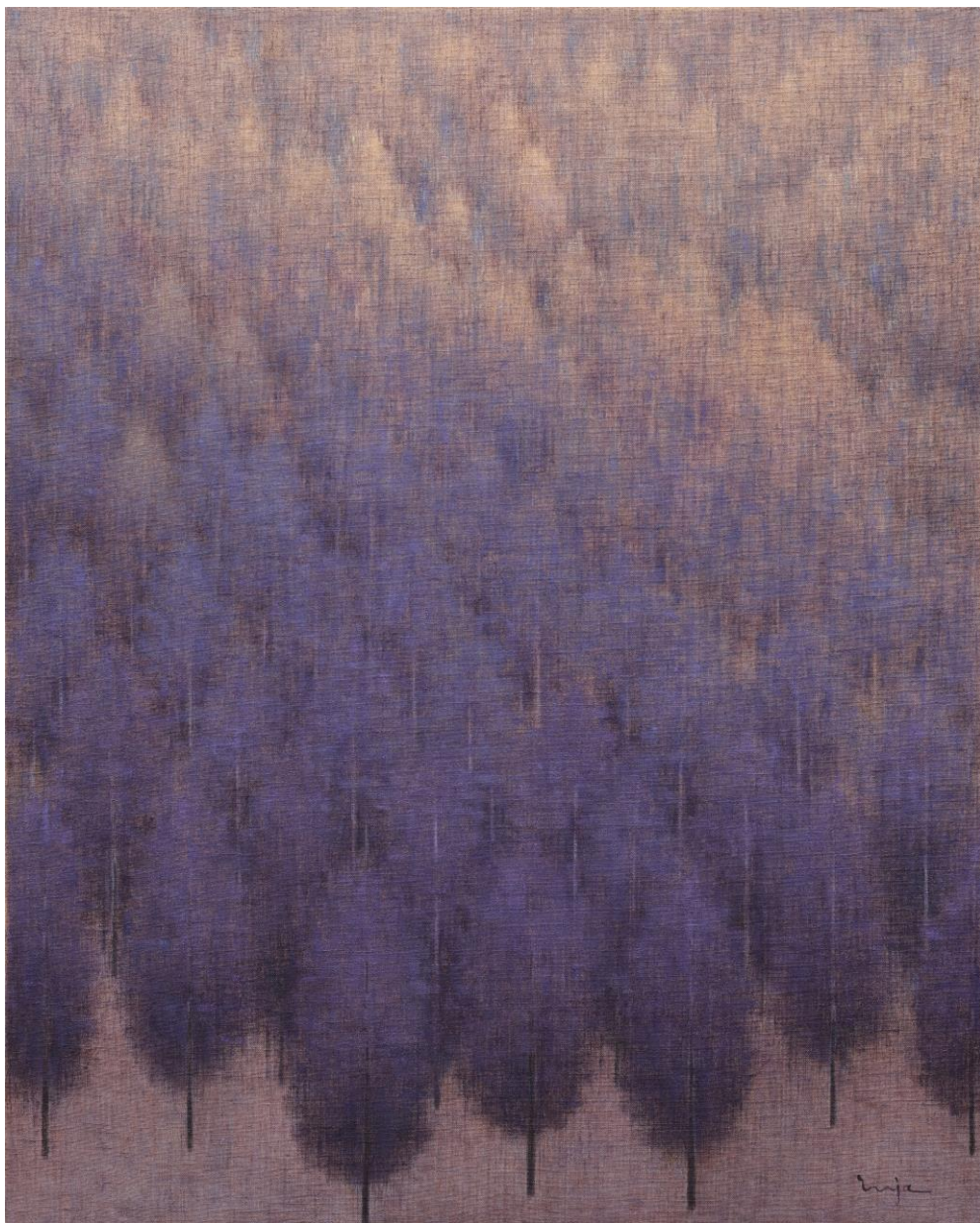
Forest-spirit

116.8x91cm,
Oil on canvas, 2026



Forest-spirit

130.3x162.2cm,
Oil on canvas, 2026



Forest-spirit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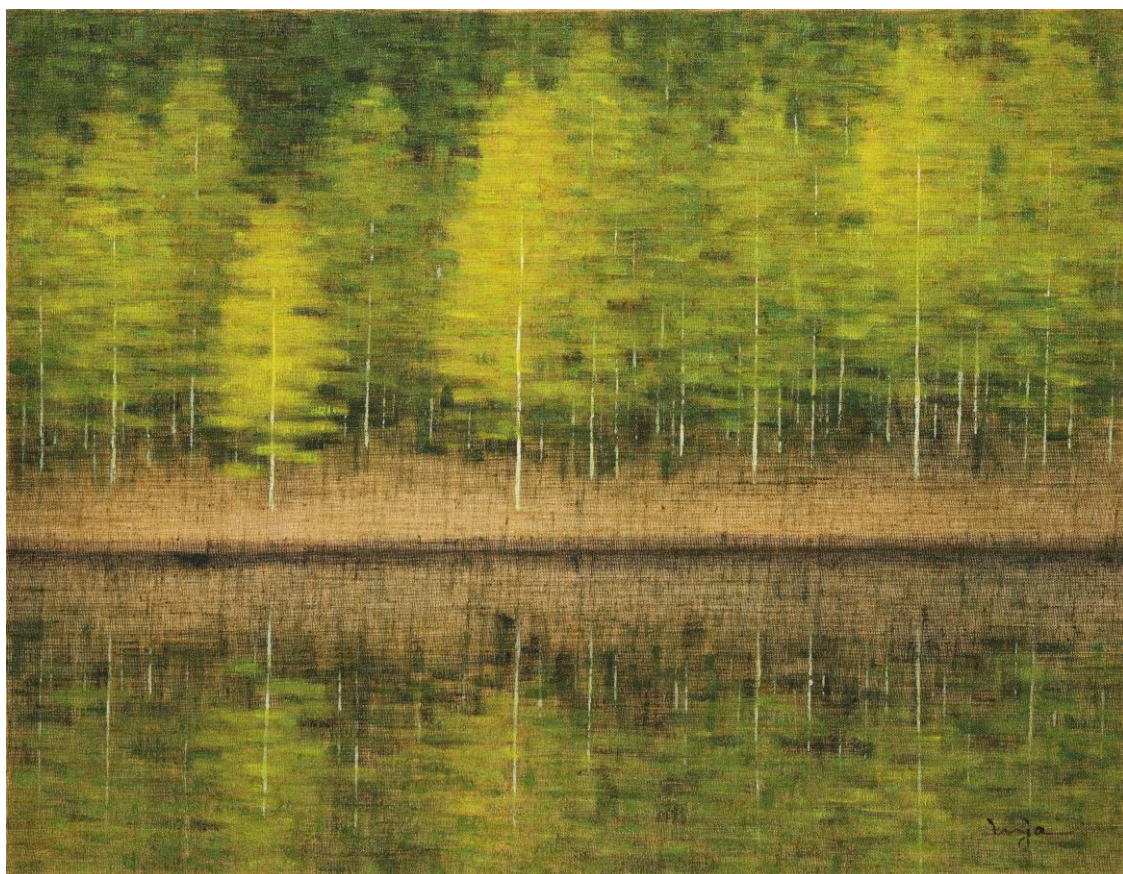
Forest-spirit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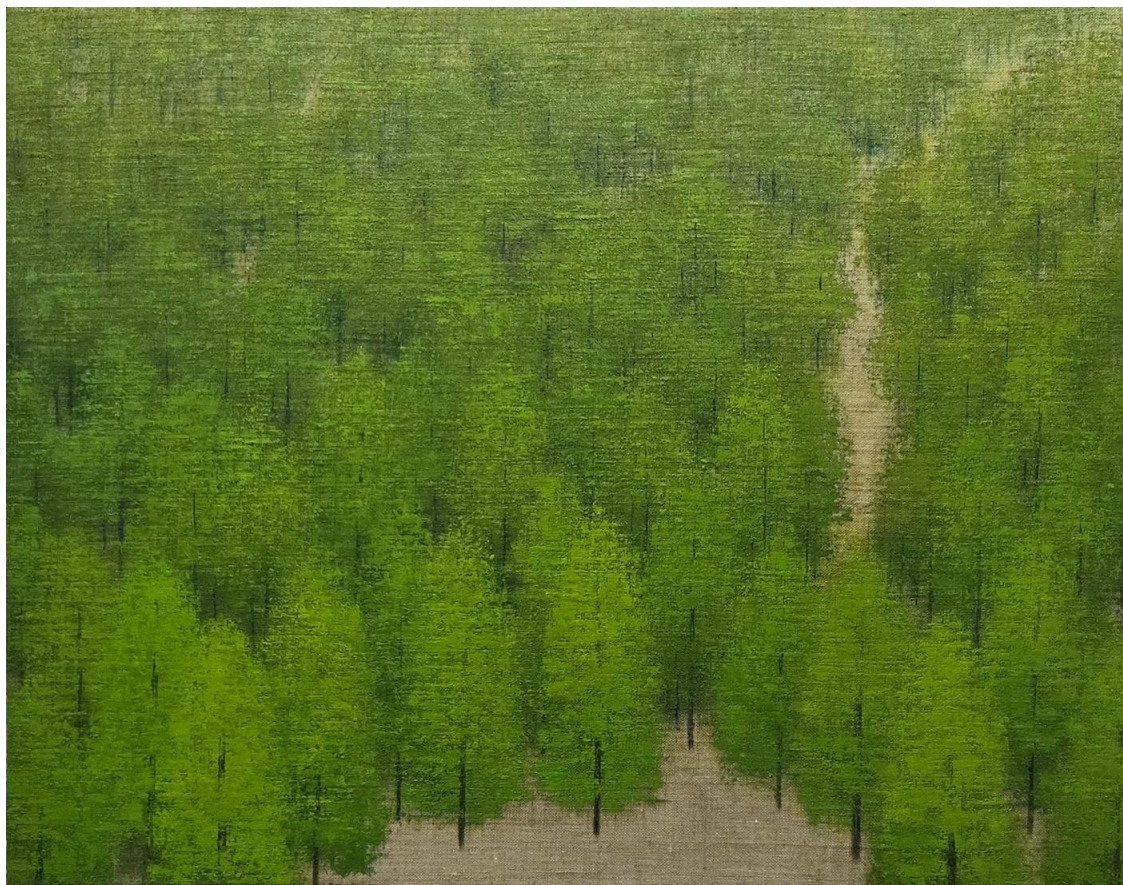
Forest-spirit

145.5x112.1cm,
Oil on canvas, 2024



Forest-spirit

116.8x91cm,
Oil on canvas, 2025



Forest-spirit

116.8x91cm,
Oil on canvas, 2025



진달래

130.3x162.2cm,
Oil on canvas, 2026



Forest-spirit

53x45.5cm,
Oil on canvas, 2025

NEOArt